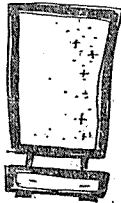


청춘의 연령은 열 마나 길어질가

■ 呂 卿 九



우리의 평균수명도 길어져서 남자가 환갑을 맞을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82%, 여자는 89%, 고희(70세)까지 사는 분이 남자 63%, 여자 77%, 희수(喜壽)(77세)가 남 41%, 여 59%나 된다니 현대와 같이 치료의학의 발달과 예방의학적 전식이 높아가는 세대에서 건강된 생활상태를 계속 시킨다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세계 장수국(長壽國)의 한 멤버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대(漢代)의 신선(神仙)의 술(術)은 다채로웠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인구구성도 고도로 고령화되어지고 노인문제가 자

연히 중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나이는 비록 먹어도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더 속달하게 성을 즐길 수 있느냐가 문제되고 보양(補陽), 그리고 성기의 병 특히(腫瘍, 前立腺 등) 노화된 성기관에 대한 비노기과학적인 연구도 절실히 진요하게 될 것이다.

장자로 부터 백 수십년 옛 진한시대(秦漢時代)로 부터 사람은 신약을 찾아 공상과 과학의 세계를 헤메다녔다. 신선(神仙)사상이 대단했던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나 한(漢)나라의 인간의 무제(武帝)는 선인을 승천(昇天)한 불사이타기 보다는 선선계에 사는 영물(靈物)로 생각한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선인은 불사불노의 인간으로 생각했으니 성생활도 계속된 것으로 왔다. 방사(方士)들의 신선(仙)의 술(術)도 한대(漢代)에는 불사약초(不死藥草), 불사금단(不死金丹), 영매(靈媒), 규방(閨房)의 술(術) <특히 다양한 변위체(變位體)로 성생활을 즐기는 것> 체조 안마를 하는 등등 그레파토리가 다양다색했다.

고대 희랍인이나 로마인은 정신과 물질을 나눠서 생각해서 물질인 육체는 썩어나 정신 즉 영혼사고(靈魂思考)는 불멸이라는 사상이 세워서 푸라토닉한 사랑이라고 이성간의 사랑을 가졌다.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가

성(性)이 없는 인생은 즐거움 없는 인생

그러나 동양에서는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기에 불노불사(不老不死)는 어디까지나 육체 그 자체도 불사(不死)이어야만 된다. 그러기에 인생은 즉 즐거움이다. 병이라든가 노쇠는 이 즐거움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성의 즐거움이 없는것 노화는 무미한 인생이고, 죽음 그것은 인간에 있어 최대의 적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것이 당연의 영예로 생각했다.

옛부터 두부(頭部)의 영역은 체내의 정신의 원천이고 이곳이 정액의 원천이라 생각했고 신체중앙의 영역은 두개강(頭蓋腔)과 성기를 연결시키는 관이라고 보고 하부(下部)의 영역은 단전(丹田)을 품은 두개의 신(腎)으로 되어 있고 우측은 호대(虎大(陽)) 좌측은 용대(龍大(陰))으로 대표된 생식활동의 금좌(金座)이었다.

선조들은 성행위에 새로운 형을 고안해 내다

도교(道敎)의 성영위(性營爲)는 주로 보류교접(保留交接)이었다. 정액은

대뇌(大腦)에서 방광(膀胱)에 내려오는데 사정하지 않은 정액은 다시 그 원천에 돌아간다는 정의 귀치(歸置(還精))를 믿고 본능의 성적흥분은 사정(射精)까지 이르지 않을 정도에 억제를 자연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켜왔다. 그러기에 선조들은 성행위에 새로운 형도 고안해 냈고 또 생식을 목적으로 할 때 이외의 성생활을 능력껏 지켜보양해 왔다. 생물의 최대 특징인 자기와 같은 생명을 만들어 후세에 남긴다는 생식 본능을 목적으로 하든 안하든 성능력은 30년 미래에 어떻게 변할가 생각할때 우선 문제되는 것이 성노화의 예방이 문제될 것이다.

RNA의 저장은 30대의 청춘을 언제나 유지하게 해준다

현재로서는 지능이나 성의 분야에서 약 35세를 지나면 그의 뇌세포가 쇠퇴하고 사멸해 간다. 그리고 60세가 지나면 신경세포도 잃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에서 감소해가는 RNA(細胞核의 蛋白質의 중요한 원천)의 저장과 대처될 능력의 향상과 생산을 자극시키므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이 있는한 살려 둘 수 있게만 된다면 성능력은 언제나 30대 이전의 청춘일 것이다.

특집 / 미래의 의학

이 문제는 극히 속강한 테마이고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명확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30년내에 이 문제만 해결해내면 성능력과 성생활은 연령과 관계 없이 고희든 희수든 20대의 성능력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간기능은 스테미나의 근본

그렇게 되면 자연 성생활의 관리가 중요하게 된다. 방사시(房事時)의 협심증(狹心症) (고혈압자의 증상을 가진 사람이나, 갑상선이 항진된 사람이나, 만성빈혈 당뇨병의 사람)이 일어날 사람은 근본적 건강관리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동물성 지방, 함수탄소, 쌀, 설탕의 섭취제한도 물론이려니와 과로를 피하고 리드미칼한 생활과 성생활이 절망되게 될 것이다.

간장의 도세관은 보통보다 몇배씩 굵으니 동맥경화는 그리 쉽게 안 일어나도록 원래 되어 있지만 간에 부담을 주는 과로, 철야(徹夜), 폭음(暴飲), 대식(大食), 간식, 너무나 신경을 쓰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면 간장의 기능이 저하되지만, 섹스에 민감한 사람이 홀몬과 능력만 문제로 보다가는 성적 스테미나의 근본이 되는 간장 기능을 그르치기 쉽다. 어떻게든 30년 후의 의학은 많이 발전할 것

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하여 항춘(恒春)같은 성능력을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1세기 사람의 성생활은

그러나 현재에도 그렇고 30년 후에도 그렇고 더 먼 미래에도 그렇겠지 만 옛날부터 인류와 더불어 내려오는 「태양이 지면 태양과 같이 쉰다」하는 일주적(日周的)인 선천적 관념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는 휴식한다는 주행적(盡行的) 리드미칼한 생활 자연에 타고 순천적(順天的) 생활을 함이 필요하다. 일간문화생활이 복잡해 질수록 스트레스도 생긴다. 모든 생활을 주기적으로 리드미칼 하게 영위 할려고 노력하면 성능력도 즐겁게 연장될 것이다. 30년 후인 21세기의 성능력과 성생활을 생각해 보면 마치 춘삼월 과수원 밭에 아지랑이 봉숭아 꽃 속에 솟아나듯 항춘적(恒春的)으로 즐거운 것이라 생각된다.

(원자=동남의원장·비뇨기과 전문의·의박)

■ 기생충 박멸 표어

새마을 건설은
기생충 구제부터

한국기생충박멸협회

30년 후는 어떻게 변할가